

08

2022

제210호

## 우즈베키스탄 경제 브리프

## 1. 대내외 정세 ..... 1

- o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동향
- o 상하이협력기구(SCO) 지역대표포럼(타슈켄트市) 개최
- o 외교부,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 의사 표명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공무원 개혁 및 행정 운영 효율성 향상 방안 논의
- o 외교부, 자국민에게 용병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경고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 o 우즈베키스탄, 제4차 SCO 여성포럼 개최
- o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상황 논의
- o 정부 인사 신규 임명

## 2. 경제·산업 동향 ..... 4

- o 2022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GDP 성장률 5.4%
- o 22.7.1. 기준 우즈베키스탄 노동가능인구 2,038.2만명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교통 회랑 발전 중요성 강조
- o 제2차 상하이협력기구(SCO) 경제포럼(타슈켄트市) 개최
- o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기업인 지원 방안 논의
- o 우즈베키스탄, 관광 분야 활성화 계획
- o 우즈베키스탄-아랍에미리트 투자 협력 전망 논의

## 3. 에너지·인프라 동향 ..... 7

- o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크 전력 수입 관련 채무 전액 상환
- o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 협약 9월 체결 예정
- o 아시아개발은행(ADB), 타슈켄트州 식수 공급 개선을 위해 1.61억불 할당
- o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석유 수입국
- o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에 세계 최대 풍력발전단지 건설 예정
- o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에너지 협력 확대 로드맵 서명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주 소 Afrosiab st. 7, Tashkent, 100029, Uzbekistan  
전 화 +998-71-252-3151~3  
이 메 일 uzkoremb@mofa.go.kr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uz-kor/index.do>

※ 본고의 내용은 우즈베키스탄 내 관련기관, 언론 등 발표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대내외 정세

### □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동향

- 9.20.(화) 12:00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누적 244,011명(완치 241,504명, 사망 1,637명)이며, 지난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1명
- 8.29. 위생·공중보건청은 5~11세 아동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아동용 화이자(Pfizer) 백신 20만 회분을 전달받았으며, 동 백신은 유럽연합과 스웨덴 정부가 COVAX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 □ 상하이협력기구(SCO) 지역대표포럼(타슈켄트市) 개최

- 8.3. 호자예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은 동 회의 연설을 통해 △역내 다각적, 전략적 협력 발전, △무역, 경제, 투자, 문화 분야 협력 심화, △‘2023-2025 SCO 역내 무역 발전을 위한 공동 행사 계획’ 수립, △‘우즈베키스탄-SCO’ 산업지구(사마르칸트市) 설립, △SCO 투자프로젝트개발센터 설립, △식량안보, 농업, 관광 파트너십 확대 방안 등 제시
- ※ 동 포럼에 참석한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대표단은 관광, 문화, 농업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 □ 외교부,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 의사 표명

- 8.4. 외교부는 최근 대만 상황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은 조속한 긴장 완화를 희망하며, 국제 규범 및 원칙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과 주권, 영토보전을 지속 지지한다고 발표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공무원 개혁 및 행정 운영 효율성 향상 방안 논의

- 8.4.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 도입, △청년 전문가 채용 프로그램 시행, △국가서비스 절차 간소화, △국민 참여 증가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공무원의 경력, 성과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 △역량 강화 및 전문 교육 지원 등 지시

## □ 외교부, 자국민에게 용병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경고

- 8.11. 주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 외국 영토에서 의용군 창설 및 군사작전 참여 행위는 우즈베크 형법에 따라 최대 10년 징역의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주의할 것을 요청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 (모하메드 왕세자와 공식회담, 8.17.)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첫 국빈 방문이 관계 발전의 많은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 확신
- 양측은 △기업인 간 교류, △교역량 확대 및 교역품목 다양화, △우즈베키스탄 입국시 무비자 제도 도입, △우즈베크 민영화 사업에 사우디 기업 참여 증가 등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동 회담 결과로 양국 동반자관계 확대에 대한 공동서명 채택 및 15개 문서 체결
- (히세인 브라함 타하 이슬람협력기구(OIC) 사무총장 접견, 8.18.)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슬람 가치 보존 및 이슬람 국가 간 상호이해, 정치·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동 기구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양측은 △여성의 역할 강화, △청년 역량 강화, △아랄해 등 환경 문제 개선, △對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지원 등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모하메드 빈 슬레이만 이슬람개발은행(IDB) 총재 접견, 8.18.) 양측은 △IDB 타슈켄트 사무소 활성화, △교통 인프라 개선, △아랄해 지역 환경 문제 개선, △對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지원 등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사우디 기업인 간담회, 8.18.)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크 민영화 사업에 사우디 기업 참여, △녹색에너지 및 녹색경제 프로젝트, △디지털경제, 바이오·나노 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 협력 확대, △식품 생산, 보건, 관광 분야 프로젝트 등 협력 비전 제시
- (훈장 수여식, 8.18.)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에게 ‘이맘 부하리’ 최고 훈장 수여  
※ 동 훈장은 22.8.15. 제정된 법에 따라 과학 발전, 계몽운동, 이슬람 사상가의 유산 연구 및 홍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슬람 법학자, 연구자, 작가, 외국 및 정부 대표에게 수여 / 동 훈장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에게 최초 수여

## □ 우즈베키스탄, 제4차 SCO 여성포럼 개최

- 8.19.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미르지요예프 정권이 성평등 확립을 주요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역내 여성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하고 있으며, SCO회원국 내

△여성 의원 비중 20% 증가, △장관급 지도자 비중 10% 증가 등 여성의 정치 참여율 증가 등 성과를 언급

- 우즈베키스탄 직업별 여성의 사회진출 비중은 △정치인 32%, △기업인 25%, △고등 교육 기관 종사자 46%이며, 2021년도 국제의원연맹의 국가별 여성의원 비율 순위에서 45위 차지

#### □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상황 논의

- o 8.23. 외교부는 8.21. 아프간 국적자가 집단으로 우즈베크 국경을 불법 월경하는 사태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동 사태로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부상자에게 의료 지원 및 본국 복귀 준비를 제공 중이라고 설명

※ 동 사태로 사망자 2명, 부상자 6명 발생

#### □ 정부 인사 신규 임명

- o 8.10. 바흐티요르 이슬라모프 前 법 집행 및 규제 기관 담당 대통령 고문을 대법원장으로 임명
- o 8.30. 홀무로도프 노짐존 前 부하라 제1부주지사를 투자대외무역부 제1차관으로 임명

## 2. 경제·산업 동향

### □ 주요 경제지표

#### ■ 생산·소비(전년 동기비) \*출처: 우즈베크국가통계위원회

- 산업생산(조숨) : ('21.7월) 233.8 → ('22.7월) 293.0(5.5%)( '21년: 451.6)
- 소매판매(조숨) : ('21.7월) 122.9 → ('22.7월) 159.9(11.2%)( '21년: 249.5)
- 물가(CPI)(%) : ('21.7월) 11.1 → ('22.7월) 12.3(전월비 △0.08%)( '21년:9.98)

#### ■ 대외교역 (전년 동기비) \*출처: 우즈베크국가통계위원회

- 총 교역액(억불): ('21.7월) 217.6 → ('22.7월) 281.0(29.2%)( '21년:451.6)  
※ '22.7월(억불): 교역 281.0(29.2%), 수출 112.7(38.1%), 수입 168.3(23.8%), 수지 △55.6
- 對한 교역(억불): ('21.7월) 10.5 → ('22.7월) 14.5(38.4%)( '21년:18.9)  
※ '22.7월(백만불): [우통계] 교역 145.4(38.4%), 수출 30.6(5.9%), 수입 1,423.0(39.3%), 수지 △1,392.4  
[韓통계] 교역 1,298(20.3%), 수출 18(39.0%), 수입 1,280(20.1%), 수지 △1,262  
\*출처: 한국무역협회

#### ■ 금융·외환 (전년 동기비) \*출처: 우즈베크중앙은행

- 기준금리(%) : ('21.8월) 14.0 → ('22.8월) 15.0(1%p)  
※ 20.9월 이후 14%를 유지, 러-우 사태 이후 22.3.17. 17%로 인상 → 22.6.10. 16% → 22.7.22. 15%로 인하
- 숨/달러 환율 : ('21.8월) 10,653.2 → ('22.8월) 10,930.0(절상률 2.6%)( '21년末:10,837.6)
- 외환보유고(억불): ('21.8월) 351.1 → ('22.8월) 346.1(금보유량 210.8)( '21년末:351.4)
- 대외채무(억불) : ('22.4월) 388(국가채무 234)

### □ 2022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GDP 성장률 5.4%

- 8.3. 국가통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4%를 기록하였으며, 부문별 성장률은 △서비스업 7.3%, △건설업 6.2%, △산업 5.1%, △농림어업 2.7% 등

### □ 22.7.1. 기준 우즈베키스탄 노동가능인구 2,038.2만명

- 8.8. 국가통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2.7.1. 기준 우즈베키스탄 △총 인구 3,560.3만명,

△노동 가능 연령은 전체의 57.2%인 2,038.2만명, △동 연령 이하 1,124.9만명 (31.6%), △동 연령 이상 397.2만명(11.2%)

※ 우즈베키스탄 노동 가능 연령은 남성 16~60세, 여성 16~55세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교통 회랑 발전 중요성 강조

- 8.9.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올해 5만개 이상 신규 기업 설립, △수출 규모 전년대비 1.3배 증가한 82억불 달성 등 국내 산업 및 비즈니스 분야 발전 성과와 이에 따른 생산 확대, 세계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수출 경로 최적화, △운송 비용 절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허가 취득,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합작 운송회사 설립 등 방안 논의

## □ 제2차 상하이협력기구(SCO) 경제포럼(타슈켄트市) 개최

- 8.16. 보이토프 투자대외무역부 제1차관은 동 포럼 연설을 통해 역내 △상호 투자 활성화, △교역 증대, △교통 상호연계성 강화, △물류망 강화, △식량 안보 및 농업 분야 협력 확대 등 주요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

※ 동 행사에 SCO 회원국 경제, 무역, 투자 담당 부처 및 상업은행, 국영기업, 상공회의소 등 관계자 참석

- 또한, 동 포럼 참석자들은 최근 역내 교역 증가 등 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무역, 경제, 투자,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동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 아프가니스탄 횡단 교통 회랑 구축 등 역내 화물 운송량 증가를 위한 프로젝트, △무역, 경제, 투자, 문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기업인 지원 방안 논의

- 8.22.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제2차 '기업인과 열린 대화' 계기 △기업 규모별 세제 혜택 등 지원 확대, △23.1.1.부터 부가가치세율 12%로 인하, △기업인의 재산 보호 강화, △기업활동 관련 통제 강화, △상공회의소 임무 및 권한 확대 등을 제안하였으며, 대통령 산하 기업인지원협의회 구성을 지시

※ 21.8.20.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제1차 '기업인과 열린 대화'를 개최하였으며, 21.12월 매년 8월 20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동 행사 준비를 위한 회의(8.3.)를 주재하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역 방문,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절차 간소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및 제안사항 분석 등 필요성을 강조 / 총 7천건 이상의 문의사항 및 제안사항이 전담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대다수가 대출, 토지할당, 사유재산보호, 권리 및 허가, 세금 등 관련 문제

## □ 우즈베키스탄, 관광 분야 활성화 계획

- 8.22. 국가통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7월 간 관광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동기비 2.2배 증가한 총 240만명이며, 국가별 순위는 △러시아(24.7만명), △터키(3.8만명), △한국(8.4천명), △독일(8천명), △미국(6.3천명) 등
- 관광문화유산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2.9.1.부터 '우즈베키스탄 국내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관광에 따른 지출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시행 예정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향후 5년 내 △사마르칸트 방문 외국인 관광객 150만명, △우즈벡 방문 외국인 관광객 900만명, △관광 분야 고용자 50만명 달성 등을 위한 동 센터의 역할 강조

## □ 우즈베키스탄-아랍에미리트 투자 협력 전망 논의

- 8.30. 호자예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은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무역, 경제, 에너지, 물류, 보건, 농업, 관광 분야 협력 발전, △자본금 10억불 규모 우즈벡-UAE 합작투자회사 업무 성과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30억불 규모 17개 공동 프로젝트, △탈리마르잔(Talimarjan) 화력발전소 확대 사업 등 현황 점검
- ※ 22.9.9. 우즈베키스탄(투자대외무역부, 국가전력망공사, 화력발전공사)-UAE(에너지인프라부, Mubadala, TAQA) 간 탈리마르잔 화력발전소 확대 협약서 서명식 개최(타슈켄트市)

### 3. 에너지·인프라 동향

#### □ 주요 에너지통계

##### ■ 에너지 생산 및 증감률(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베크국가통계위원회

- 전력(십억kWh):('21.7월) 40.3 → ('22.7월) 40.0(△0.7%) ('21년: 70.1)
- 가 스(bcm):('21.7월) 30.6 → ('22.7월) 30.3(△0.9%) ('21년: 53.8)
- 석 유(천톤):('21.7월) 1,228 → ('22.7월) 1,210(△1.4%)(※가스콘덴세이트 포함) ('21년: 2,098)
- 석 탄(천톤):('21.7월) 2,738 → ('22.7월) 2,939(6.9%) ('21년: 5,054)

##### ■ 에너지 가격 및 증감률(전년동기비) \*출처: (전기)우즈베크국가전력망공사, (가스/가솔린/디젤)우즈베크석유가스공사

- 전 기(UZS/kWh):('21.8월) 450 → ('22.8월) 450(0%) (※산업용) ('21년: 450)  
( '21.8월) 295 → ('22.8월) 295(0%) (※가정용) ('21년: 295)
- 가 스(UZS/m³):('21.8월) 1,000 → ('22.8월) 1,000(0%) (※산업용) ('21년: 1,000)  
( '21.8월) 380 → ('22.8월) 380(0%) (※가정용) ('21년: 380)
- 가솔린(UZS/ℓ):('21.8월) 8,200 → ('22.8월) 12,000(31.7%) (※Ai-95 기준) ('21년: 10,200)
- 디 젤(UZS/ℓ):('21.8월) 9,100 → ('22.8월) 15,200(40.1%) ('21년: 9,500)

#### □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크 전력 수입 관련 채무 전액 상환

- 8.1. 에너지부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 공급한 전력량은 21.5억kWh이며, DABS(Da Afghanistan Breshna Sherkat: 아프간 국영전력회사)가 전력 거래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발표

※ 아프간 에너지·수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지불해야 할 전력 거래대금이 1억불 이상 연체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변국 은행 업무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5.19.)

- 우즈베크 국가전력망공사(NEGU)와 DABS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2022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공급될 총 전력량은 22.1억kWh이며, 8.1일까지 공급된 전력량은 7.7억kWh으로 DABS는 전력 거래대금을 체계적으로 지급할 예정



## □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 협약 9월 체결 예정

- 8.2. 제1차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튀르키예 외교통상교통 장관회의 계기 노로프 외교장관은 9.15~16일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될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 관련 3자 문서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발표

※ 9.14. SCO 사마르칸트 정상회의 계기 우즈베키스탄 교통부는 키르기스스탄, 중국과 동 철도 건설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

- 동 철도 회랑과 트랜스코카시아(Transcaucasian) 회랑을 연결함으로써 관련 국가 간 단일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무역 통로를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

※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20년 넘게 논의되어 왔으며, 여러 철도 경호가 제시되었지만 접근성, 비용 등 문제로 합의 도달 지연

## □ 아시아개발은행(ADB), 타슈켄트주 식수 공급 개선을 위해 1.61억불 할당

- 8.4.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참여하는 타슈켄트주 식수 및 수도 시스템 구축 및 재건(3 단계) 프로젝트' 시행 방안에 대한 대통령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통해 타슈켄트주 내 △식수 및 수도 공급설비, △위생, 보건, 환경 상태 등 개선될 예정

- 5년(2022~2027년) 동안 시행될 동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 약 1.86억불 중 1.61억불은 ADB 대출(상환 기간은 5년의 유예 기간 포함 25년), 24.8백만불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 혜택 제공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충당

##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석유 수입국

- 8.12. 국가통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금년 1~6월간 35.9백만불에 달하는 60.6백만리터 휘발유를 수입하였으며, 주요 석유 수입국은 △러시아(48.8백만리터), △투르크메니스탄(11.7백만리터) 등

- 우즈베키스탄의 금년 6개월간 휘발유 생산량은 전년동기비 1.8% 증가한 56.27만톤이며, 국내 기업은 평균적으로 월간 약 9만톤의 휘발유를 생산

## □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에 세계 최대 풍력발전단지 건설 예정

- 8.18.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계기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사우디 에너지부 및 기업 간 120억불 규모 협약 체결

① (ACWA Power) 카라칼팍스탄 내 1.5GW 풍력발전소 설립 협약서

② (ACWA Power - Air Products) 우즈베키스탄의 녹색 수소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협력 협약서

- ③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수력발전소, △에너지 설비 생산 현지화 등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복합단지에 대한 사우디 측의 향후 5년 100억불 규모 투자 의향서

□ 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에너지 협력 확대 로드맵 서명

- o 8.29. 아흐메드하자예프 에너지부 제1차관과 샤흐바조프(Shahbazov)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 장관은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로드맵에 서명
  - 동 로드맵은 △공동 실사팀 구성, △우즈베크 기업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탄화수소 분야 협력, △에너지 분야 상호투자 장려, △민영화 사업 참여, △우즈베크석유가스공사(Uzbekneftegaz)와 아제르 기업 SOCAR 간 파트너십 확대 등 총 30개 협력 방향을 포함

## <참고: 우즈베키스탄 경제 개황>

■ 국토면적 : 44.9만km<sup>2</sup> (한반도의 약 2배)

■ 인 구 : 3,527만명 (2022.1월 기준)

※ 중앙아 5개국 76.5백만명 (카자흐 19.1백만, 타지크 9.5백만, 키르기스 6.6백만, 투르크멘 6.1백만)

■ 경제성장(IMF)

○ 명목GDP : (2020) 599.3억불 → (2021) 678억불

○ 1인당 GDP : (2020) 1,767불 → (2021) 1,983불

○ 실질성장률: (2020) 1.7% → (2021) 7.4%

■ 교역현황 : (2020) 363억불 → (2021) 421억불(16%)

※ 2021년 수출입 : 수출 166억불(10%), 수입 255억불(20.4%), 무역수지 △89억불

※ 교역순위(억불): ①러시아(75.2), ②중국(74.4), ③카자흐(39.1), ④터키(33.9), ⑤한국(18.9)

■ 경상수지 : (2020) △31.4억불 → (2021) △46억불

■ 외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FDI): (2020) 28.7억불→ (2021) 28.4억불(30.1조숨)

○ 외국투자기업 수 : 총 13,289개 (2022.1.1. 기준)

※ 국별순위: ①러시아 2,309개, ②중국 1,927개, ③터키 1,882개, ④카자흐 1,067개, ⑤한국 896개

■ 투자환경

○ 국가신용등급(S&P) : BB-(장기)/B(단기)

○ 기업환경평가(세계은행, Doing Business) : 69위/190(2020)

○ 경제자유지수(해리티지재단, Index of Economic Freedom) : 108위/186(2021)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40위/180(2021)

■ 지역경제

연번	지역명	면적(천km <sup>2</sup> )	인구(천명)	지역총생산(2021)	
				조숨	비중(%)
1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166.6	1,948.5	26.3	3.6
2	안디잔주	4.3	3,253.5	43.8	6.0
3	부하라주	40.2	1,976.8	38.7	5.3
4	지작주	21.2	1,443.4	23.3	3.2
5	카슈카다리아주	28.6	3,408.3	43.8	6.0
6	나보이주	111.1	1,033.9	59.4	8.1
7	나망간주	7.4	2,931.1	34.5	4.7
8	사마르칸트주	16.8	4,031.3	53.7	7.3
9	수르한다리아주	20.1	2,743.2	30.1	4.1
10	시르다리아주	4.3	878.6	15.6	2.1
11	타슈켄트주	15.2	2,941.6	82.1	11.2
12	페르가나주	6.8	3,896.4	47.3	6.4
13	호레즘주	6.1	1,924.2	26.9	3.7
14	타슈켄트시	0.3	2,860.5	121.8	16.6